

대학 교양수업이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북미 사회와 문화의 이해’ 수업을 중심으로—

신영현**

<목차>

- I. 서론
- II. 문헌 연구
- III. 교과목 개요 및 운영
- IV. 연구 방법
- V. 연구 결과
- VI.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I. 서론

21세기는 기후 위기, 빈곤, 불평등, 전염병 및 문화와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 같은 초국경적 과제가 일상화된 ‘초연결 사회’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나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빠르게

* 본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yhshin@hansung.ac.kr

확산되며,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의 빈도를 증가시키며, 글로벌 교통망의 발달과 이에 따른 사람, 자본, 재화의 이동은 예전 상황이었으면 국지적인 전염병으로 끝났을 질병이 순식간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오늘날 인류 사회가 겪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환경, 경제, 건강,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과 글로벌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대응 역량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런 상황은 스스로를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일원으로 동일시하기 전에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각하는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 갖춘 사람들, 즉 글로벌 시민의 존재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왔다. 해외 대학의 경우, 하버드 대학교의 ‘General Education’ 프로그램을 위시하여, 옥스퍼드 대학교의 ‘Global Citizenship Programme’과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Global Citizenship Programme’ 및 도쿄대학교의 ‘GLOBE Initiativ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다문화적 감성과 교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하여 다양한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서울대학교의 ‘세계와 시민’ 영역의 교양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SNU in the World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를 강화해 왔다. 경희대학교 역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UN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캠페인 등 다양한 세계시민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효숙, 2025: 106-108).

H 대학교는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이라는 인재상을 확립한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공 및 교양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상의 첫 번째 목표는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나머지 두 개의 목표는 주로 교양교육을 통해 중점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상상력과 포용력을 갖춘 창의융합적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교양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세계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방법은 크게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개 다문화 체험이나 특강 위주의 단기적인 이벤트로 진행되기 마련이어서 그 교육적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비교과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교과과정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교육 도구이며, 대학의 주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양성을 대학 교양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경우라면, 옹당 교과과정을 통해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학의 교과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접목시키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세계시민교육을 교양교육 체계상의 한 영역으로 설정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영역에 개설된 다양한 과목 중 특정 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세계시민교육’을 제목에 포함한 특정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이를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교과목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업의 내용을 이 주제에 맞춰서 구성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례가 가장 강력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며, H 대학교 역시 이 방식을 채택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하였지만, 내부 사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아쉽게도 해당 영역이 폐지되었다. 실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채택하는 방식이 바로 두 번째 모델이다. 이 방식이 개설과 운영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해당 과목을 선택하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

째 모델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을 다양한 교양수업의 내용에 접목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양교육 담당자들이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시도해 보아야 할 대안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되고 운영해 온 교양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에 일차적 의의를 둔다.

한편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막상 고등교육현장에서 수행된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나마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세계시민교육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단기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이나, 세계시민의식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나 인식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에 머물러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교양수업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른 문화권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인문학 교양수업이 수강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가?

II. 문헌 연구

1. 세계시민교육의 정의

탈경계화, 전지구화 시대의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감당해 온 단체 중 하나가 유네스코(UNESCO)이다. 유네스코는 2023년에 채택한 「평화·인권·세계시민성·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지구적 위기에 대응할 핵심 전략으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한건수, 2024: 213). 이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

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된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5: 16). 세계시민교육이란 한마디로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세계시민의식에는 지구촌 및 지역적 이슈·전 세계의 상호 관계성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비판적 사고능력 등의 인지적(cognitive) 차원과 인류에 대한 소속감·공유된 가치와 책무·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갖는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 차원,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수준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행동적(behavioral) 차원이 포함된다(UNESCO, 2015: 15). 한 마디로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개선 및 실천을 위한 정서적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차봉준 외, 2020: 235-240). 정리하자면, 세계시민교육에는 인지적 차원, 사회정서적 차원 및 실천적 차원이 포함되며, 각 차원 혹은 영역에서 대표적인 가치는 각각, 이슈들의 상호연결성, 포용과 연대, 책임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세 가지 가치들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역지사지’ 능력, 즉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2. 고등교육 현장의 세계시민의식 교육 사례

국내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해 온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하버드 대학교 외에도 플로리다주 템파 소재의 종합대학인 University of South Florida(USF)가 운영하는 ‘Global Citizens Project’가 있다. USF는 세계시민교육을 대학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학부 교양과정과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글로벌 의식, 책임, 참여를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했으며, 관련 교과목 개발, 각종 워크숍, 인증 프로그램(GCP Certificate)을 운영하

는 등 대학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이혜영 외, 2017: 3-30). 영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학들 외에도 University of Glasgow가 운영하는 ‘Global Citizenship in Initial Teacher Education(GCITE)’ 프로젝트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학 전공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이론과 실재를 교직 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실습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도록 설계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학들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영국 정부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Global Learning Programme’(GLP) 사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학습자료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활동과 연계된 실천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데 기여하였다. 7,800여 개 학교와 다수 대학 교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글로벌(glocal) 문제’를 주제로 비판적 사고력, 사회문화적 이해, 공감·협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대학 수업, 교원 양성과정,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현재는 British Council의 ‘Connecting Classrooms through Global Learning’ 등이 대학·학교 연계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가천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교양과목을 2017년도에 개발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목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교육철학 아래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가치, 태도의 조화를 강조하며, 이론 강의와 함께 플러러닝, 토론, 발표,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실천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정슬기 외, 2018: 93-97). 숭실대학교는 ‘글로벌 이슈와 시민역량’이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고 시민적 역량을 실천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송영숙, 2021: 99-116). 해당 교과목의 실라

버스를 보면, 세계화의 의미와 형태 및 세계시민의식의 정의에 4주,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개관 및 분야별 심층 이해에 6주, 통일과 세계시민교육 전반에 4주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대학이 교양필수 영역에 ‘세계시민’, ‘지속 가능 발전’, ‘글로벌 리더십’을 표방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아 외, 2020: 135).¹⁾ 이는 앞서 언급한 세계시민교육의 두 번째 모델에 속하는 사례로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용이한 접근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의 성과를 대학 경계를 넘어서 확산시키는 사업에도 국내 대학들은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APCEIU)이 2016년도부터 시행한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사업’에 많은 국내 대학들이 참여해 왔다. 2025년도에는 경북대학교와 국립부경대학교를 위시한 10개 대학의 학부 과정과 전남대학교를 위시한 세 개의 대학원 과정이 사업에 선정되었다.

3.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수강 후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세계시민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김경아·전지원의 연구와 ‘글로벌 시민교육’ 교과를 운영한 결과, 92.5%의 학생이 “실천하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는 정슬기 외의 연구(정슬기 외, 2018: 100)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반응’에 대

1) 예컨대, 경희대학교의 ‘시민교육’, 서울대학교의 ‘세계시민사회’, 성신여자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연세대학교의 ‘세계시민주의’, 한국성서대학교의 ‘세계시민되기’ 등의 다양한 강좌가 대학의 교양수업으로 개설되고 있다(김경아 외, 2020: 135).

한 연구이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도 송영숙은 PBL 방식의 팀 프로젝트와 하브루타 토론 등의 교수법을 적용한 ‘글로벌 이슈와 시민역량’ 수업이 학생들의 글로벌 이슈 이해, 융합역량, 문제해결 역량, 그리고 글로벌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송영숙, 2023: 113-115). 김경아와 전지원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수강 후, 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 수준과 세계시민의식(지식, 기술, 태도, 실천 의지)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김경아·전지원, 2017: 141-143). 김경아 외는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이 학생들의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경아 외, 2020: 148-150). 권미은은 세계시민교육 교양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 역량 및 협력적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권미은, 2024: 144-147). 이런 연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양수업이 세계시민의식 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적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두 번째 모델에 해당되는 사례들이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한 세 번째 모델 즉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일반 교양수업에서 글로벌 역량의 함양 가능성을 살펴본 사례들도 있다. 박소은은 교양 말하기 수업이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다문화적 감수성과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박소은, 2025: 384-385). 손나경은 ‘인문교양 읽기와 스토리텔링’을 교양 강좌에 적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인성역량 및 핵심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손나경, 2022: 251-274). 그는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의식 계발,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 학

습,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해당 프로그램이 독서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를 증진하고 감성 및 사고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경희와 위은하는 의생활 영역과 융합된 대학교양교과목 ‘옷장 속의 세계시민’을 개발 및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이 ‘기술’과 ‘실천의지’ 부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정경희·위은하, 2023: 632-633). 이효숙과 전병국은 인문학 전공자와 사회학 전공자가 팀티칭으로 가르치는 ‘도시인문학’이라는 교양수업의 강의평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해당 수업이 수강생들의 다각적 관점 형성과 문화적 이해 증진, 글로벌 연결감과 공감 형성 및 지속적 학습의지와 체험 욕구 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이효숙·전병국, 2025: 123).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세계시민의식 향상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유학예교양 수업의 공통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소통, 자기성찰, 공동체 의식, 비판적 사고 역량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세계시민의식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시민양성 교육의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들도 있다. 박성희는 프로젝트학습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구성원 의식, 상호 영향 의식,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과 세계시민의식(지식, 기술, 태도, 실천의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박성희, 2025: 690-691). 김수정 외는 동서대학교 교양수업 중 세계시민성을 다루는 6개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당 수업들이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분석적 스킬과 행동적 실천의지 영역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김수정 외, 2022: 731). 이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모델의 연구 사례로서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서로 상이한 6개 교과목 수강생들의 자기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 연구 성과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대학의 교양수업이 세계시민의식 내지는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일정 정도 입증되었지만, 수업 효과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설문 문항이 5개에서 10개 이내의 단출한 문항들로 이뤄진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효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두 번째 모델에 속하는 교양 교과목들의 경우 제목에서부터 세계시민교육을 내세우다보니 응답자들의 반응에서 일종의 긍정적 편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교양수업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I. 교과목 개요 및 운영

‘북미 사회와 문화의 이해’는 H 대학교의 선택필수교양 중 인문학 영역에 개설된 3학점짜리 수업이다. 수업 목표는 첫째,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사상 체계와 문화적 관행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과, 셋째,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와 제도들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제도 및 문화 관행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결국 이 목표들은 본 수업에서 함양해야 할 대표 역량인 세계시민의식 배양에 초점을 맞춘다.

본 수업은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수업은 동영상 수업 1.5시간과 오프라인 1.5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미국의 역사에 대한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간고사 이후에는 미국의 문화 및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북미대륙 국가들의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대부분임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전까지는 해당 주제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중간고사 이후에는 강의와 발표/토론 수업을 균등하게 구성하였다.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조별 발표 주제 7개를 제시한 후,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4명으로 구성된 7개의 발표 조를 운영하였다. 발표 주제는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해당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수업 진도와 발표 주제는 아래와 같다.

<표 1> ‘북미 사회와 문화의 이해’ 주차별 수업계획

주차	수업 형태	내용/주제	발표 주제	발표조
1	온라인	미국 개요		
	오프라인	Introduction		
2	온라인	미국 역사 개관		
	오프라인	미국 역사 시대 구분		
3	온라인	식민지 시대 & 프렌치 인디언 전쟁		
	오프라인	독립전쟁 & 미국 건국		
4	온라인	서부 팽창		
	오프라인	인디언 전쟁사		
5	온라인	남북전쟁의 배경		
	오프라인	전쟁과 재건기		
6	온라인	혁신주의 시대		
	오프라인	1차 대전		
7	온라인	대공황		
	온라인	2차 대전과 태평양전쟁		
8	중간고사			
9	온라인	미국의 지리	• 미국 two-week road tour 개발 (여행 concept, 방문 장소와 여정, 볼거리, 먹거리, activities, 준비물, 실행가능한 가성비 예산 등)	발표1
	오프라인	대표 주/도시		

주차	수업 형태	내용/주제	발표 주제	발표조
10	온라인	미국의 헌법 (입법부)	·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 정책(총기 규제, 낙태권, 이민정책 등)은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 문제적 인물 트럼프! 혁명가인가? 파괴자인가? (SWOT 분석)	발표2, 3
	오프라인	미국의 정당		
11	온라인	미국의 행정과 사법 (3권 분립)	· 미국 선거 제도(승자독식, 선거인단 등) 평가 (개선 vs 유지) · 미국 사법 시스템의 장단점 (검경 수사권 분리 vs 통합)	발표4, 5
	오프라인	미국의 선거와 사법 제도		
12	온라인	미국인의 미국성 —호스테드의 문화 차원이론	· 미국의 주요 holidays는 어떻게 미국의 핵심 가치(자유, 애국심, 개인주의 등)를 반영하는가?	발표6
	오프라인	미국의 문화 (스포츠/여가)		
13	온라인	캐나다의 역사	· 캐나다 이민의 장점과 단점	발표7
	오프라인	다문화주의		
14	온라인	캐나다의 문화	· 기말 PBL 과제 작성 및 제출 (조별)	
	오프라인	Review & Discussion		
15	기말고사			

발표는 조장의 주도로 30분 내외의 분량을 PPT 파일로 제작하게 하였으며, 발표 자료 작성 계획서 초안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을 거쳐 발표 계획을 확정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발표 자료는 발표 이틀 전 자정까지 온라인 수업플랫폼인 e-class의 자료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미리 자료를 살펴본 뒤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발표 자료 마지막에 발표와 관련된 토론 주제 1~2개를 제시하되 가급적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주제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주요 토론 주제들은 다음

과 같다. ‘총기 소유의 자유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권리인가?’, ‘선거인단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배심원제도 확대가 한국 사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강화하는 것이 사법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캐나다로의 이민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조별 발표 후 발표자들이 제시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조별 토론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한 후 각 조의 조장이 이를 전체 학생들에게 요약해서 발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동일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도 자신과 상당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애초에 가졌던 이해보다 더 폭넓고 완성도 높은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학습하게 되었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2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3학점짜리 선택필수 교양과목인 ‘북미 사회와 문화의 이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n=32).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44명이나, 이 중 사전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일부가 수강신청 변경기간 동안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추후 합류한 학생들의 경우 사전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해당 수업의 참여가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한 효과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기에 두 번의 설문 중 한 번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특성

항목		N	비율(%)
성별	남자	19	59.3
	여자	13	40.6
학년	1학년	26	81.3
	2학년	3	9.4
	3학년	1	3.1
	4학년	2	6.3
대학(소속)	인문대학	6	18.8
	사회과학대학	3	9.4
	공과대학	9	28.1
	창의융합대학	4	12.5
	디자인대학	5	15.6
	상상력인재학부	5	15.6

<표 2>에 따르면, 남녀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학년들의 수강 비율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양수업의 특성상 1학년들이 다수 수강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감안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공이 된다. 특히 본 수업은 선택필수 교양 수업으로서 학생들은 5개 영역의 배분 이수 과목 중 인문학 분야에 개설된 수업으로, 학생들은 4개 이상의 영역에서 5개 과목 (총 15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는 교양이수 기준에 따라 본격적인 전공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1학년 시기에 선택필수 교양을 주로 이수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별 분포를 보면 공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30%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수강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의 수강 비율은 대동소이한 편이었다. 인문학 분야의 교양수업을 공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적 지식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현실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측정 도구

설문은 구글 설문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는 너밍올지의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세계시민의식 설문 문항 31개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지는 윤성혜의 2017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대학생용 세계시민의식 척도 개발』에서 제시한 세계시민의식 문항 46개 중에서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지식(7문항), 스킬(8문항), 태도(7문항), 실천의지(9문항) 등을 선별해 만든 설문지이다. (부록 1) 세계시민의식 31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25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이는 집단의 측정 신뢰도가 충분함을 의미한다.

3. 통계분석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설문 자료의 분석과 통계치 산출을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기 초의 오리엔테이션 주간과 학기말 주차에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다섯 단계의 동의 수준(리커트 척도)으로 응답하였다. 이 응답 내용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수량화한 뒤 SPSS Ver. 26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전체 응답자 및 각 세부 프로그램별로 사전/사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초적인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의 평균값 변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종속 t -검정(*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문항의 평균값으로 종속 t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각각 세부 문항별로도 차이를 검정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V. 연구 결과

먼저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의 전체 비교 값을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기술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전	32	3.68	0.42
사후	32	4.12	0.36

분석 결과, 사후 평균(4.12점)이 사전 평균(3.68점)보다 세계시민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전·사후 대응 표본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차이	t값	p값	유의성
사전	32	3.9	0.429	2.87	4.97	0.26	2.86	0.006	유의
사후	32	4.16	0.39	3.06	5				

분석 결과, p-value가 0.006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업 수강 이후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수업이 주요 목표로 설정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주요한 성과이다.

<표 5> 세계시민의식 사전/사후 문항별 통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요약)	사전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	유의성
1	세계문제 인식	4.09	4.16	0.07	0.387	0.7	-
2	가난과 불평등 존재	4.34	4.59	0.25	1.847	0.068	-
3	불평등-정치사회 연관	4.22	4.53	0.31	2.121	*0.037	유의
4	고유문화 인식	4.28	4.59	0.31	2.097	*0.039	유의
5	편견·차별 인식	4.16	4.34	0.18	1.164	0.248	-
6	문화 보편성 인식	3.94	4.44	0.5	3.017	**0.004	유의
7	환경문제 상호영향	4.09	4.5	0.41	2.727	**0.008	유의
8	대안 장단점 평가	3.22	3.59	0.37	1.943	0.056	-
9	공동체 목표 방안	3.56	3.72	0.16	0.836	0.406	-
10	이슈 비판적 사고	3.59	3.81	0.22	1.101	0.275	-
11	이슈 이성적 분석	3.63	3.97	0.34	2.006	*0.049	유의
12	지식/원리 적용	3.81	4.09	0.28	1.808	0.075	-
13	강점/약점 파악	3.97	4.47	0.5	3.442	**0.001	유의
14	의견 토론	3.81	4.28	0.47	2.763	**0.008	유의
15	사회 상호작용	3.78	4.19	0.41	2.473	**0.016	유의
16	인간 존엄성 인식	4.03	4.44	0.41	2.479	**0.016	유의
17	타인 감정 존중	4	4.31	0.31	1.934	0.057	-
18	권리 평등 신념	4.06	4.31	0.25	1.333	0.187	-
19	문화차이 존중	4.19	4.53	0.34	2.193	*0.031	유의
20	문화적 가치 인식	4.03	4.31	0.28	1.554	0.125	-
21	타인 종교 인정	4.16	4.5	0.34	2.108	*0.038	유의
22	다양한 배경 협력	4.13	4.5	0.37	2.436	*0.017	유의
23	모금 참여 의향	3.5	3.63	0.13	0.621	0.537	-
24	자원봉사 의향	3.69	3.88	0.19	0.9	0.371	-
25	공정거래제품 구매의향	3.47	3.75	0.28	1.366	0.177	-
26	소외된 브랜드 구매의향	3.63	3.94	0.31	1.609	0.112	-
27	시민활동 참여 의향	3.91	4.19	0.28	1.641	0.105	-
28	문화 익숙화 기회 추구	3.81	4.28	0.47	2.763	**0.008	유의

문항 번호	문항 내용(요약)	사전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	유의성
29	사회적 약자 개선노력	4.06	4.28	0.22	1.23	0.223	-
30	타문화 협업 적극성	4	4.41	0.41	2.667	*0.01	유의
31	환경문제 실천	4.09	4.41	0.32	1.984	0.052	-

*: $p < 0.05$, **: $p < 0.01$, ***: $p < 0.001$ 에서 유의

분석 결과, 31개 전체 문항 중 14개 문항(번호 3, 4, 6, 7, 11, 13, 14, 15, 16, 19, 21, 22, 28, 30)에서 사전과 사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 미만) 대부분의 항목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문항도 사후 평균이 대체로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첫째, 다문화 존중 및 수용성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6, 19, 21, 22, 28, 30번). 이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문화적 차이, 인종적 다양성, 다원적 협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향상되어 글로벌 협력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권·윤리 의식이 고양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수업 중 이루어지는 다양한 토론과 발표 활동을 통해 복잡한 사회구조와 역학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사고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아 성찰 및 자기효능감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사회 문제의 복잡성과 원인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이성적 사고력이 향상되어, 개인의 정책적·사회적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 및 소통 능력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14, 15번). 다양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관한 자신감과 태도가 향상되었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감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난 항목은 6번(문화 보편성 인식)과 13번(본인 강점/약점 파악)으로 각각 평균 0.5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본 수업을 통해 문화 간 공통점 인식능력이 향상되고, 이 과정에서 자기 이해 및 성장 인식 또한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자면, 13주차 주제로 다룬 미국의 공휴일(holidays)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와 다른 기독교 문화가 강한 미국의 공휴일 문화이지만,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차이를 넘어서는 일치와 협동을 심어주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우리 문화의 휴일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상승이 이루어진 문항은 평균 0.47점의 향상을 보인 14번(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론)과 28번(여러 문화에 익숙해질 기회 자주 가지려 함)이다. 전자의 경우, 중간고사 이후에 조별 발표와 조별 토론, 그리고 이어진 전체 토론의 수업 형태를 통해, 비슷한 배경을 가진 동년배들 가운데서도 성별, 출신, 종교 등의 차이에 따라 아주 다른 관점이 있음을 배운 것으로 보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조원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술을 터득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타인과의 토론과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수용 의지가 증가했다는 점은 본 수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5번(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 16번(인간 존엄성 중요성 인식), 30번(타문화 사람들과 일할 기회 적극 참여)의 평균이 각각 0.41점 증가하였다. 이는 수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협업 의지가 증가하였으며, 인권·존엄성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국제적 협업 및 다문화 협력 의지 호전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계시민의식의 토대를 형성하는 가치들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비판적 사고와 공감에 바탕을 둔 역량들로서, 이런 역량이 상승했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수업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항목들(23, 24, 25, 26, 27번)의 경우, 실천과 관련된 항목들로서 대개 체험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역량

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식과 토론 중심의 이론 수업이 행동의 변화 및 실천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제언

글로벌 교통과 통신의 발달,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 노동, 문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초연결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그 성격상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노력보다는 글로벌 사회 차원의 협력과 대처를 통해서만 해결가능한 과제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 혹은 가치가 바로 세계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 기관들도 이에 주목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과목을 운영해 왔다. 대학 교양교육에 세계시민교육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는 세계시민 관련 영역을 교육체계에 포함시켜서 일정 학점 이상 수강하게 하거나, 개별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한된 교양이수체계 안에 세계시민교육 영역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에 비해 개별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한 접근법이지만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반 인문학 교양수업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형식의 세계시민교육이 국내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단기 교육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형태로 진행된 연구로 그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존 연구들은 세계시민의식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나 인식 변화와 관련된 문항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자체가 수업을

전후하여 변화를 보이는데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 교양수업으로 진행한 수업을 전후해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의 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본 논문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H 대학교 교양수업 ‘북미 사회와 문화의 이해’는 블렌디드 방식(온라인+오프라인)으로 운영된 3학점짜리 선택교양 수업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문화·제도를 다루면서 학생들의 비교문화적 시각과 비판적 사고, 토론 능력 등을 함양하는 수업이다.

본 연구는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세부 요소들로 이루어진 동일한 설문(31문항, 리커트 5점 척도)을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실시하여 전후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은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역지사지 능력, 즉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 기술, 태도, 실천의지 등 세계시민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한 신뢰도를 갖추었다. 분석 결과, 사후평균(4.12점)이 사전평균(3.68점)보다 높았으며, t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화의 보편성 인식,’ ‘자기강점과 약점 파악,’ ‘타인과의 토론 및 소통 능력,’ ‘다문화 수용성,’ ‘인간 존엄성 인식’ 등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해당 교양수업이 학생들의 문화 다양성 수용,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업 의지, 인권·윤리의식, 자아 성찰과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 세계시민의식의 핵심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증진함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인문 교양 수업이 타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 문화간 비교를 통한 문제해결, 소통과 협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미비한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양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30명이라는 규모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최소한의 통계적인 타당성은 확보한 수치이지만 좀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성별, 학년, 전공 등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역량 향상 정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양수업의 정원을 줄여가는 추세 속에서 효과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본격적인 인문 교양수업이 세계시민의식의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적인 연구이다 보니, 질적 연구를 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역량 변화가 본 수업을 통해서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학습 목표를 가진 과목들의 수업을 통한 결과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 이외의 주제를 다루는 다른 인문 교양 수업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내용을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 이해 및 한국 사회와의 비교에 국한해 구성했으나, 미국, 캐나다, 한국을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유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수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수업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일반 교양수업이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른 교양수업들에도 적용 가능한 수업모델들을 개발한다면, 시대적 요구에 더욱 적극 부응하는 교양교육의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미은(2024), 「세계시민교육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역량 그리고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연구』, 제17권 제1호,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pp.129-155.
- 김경아·김수진·윤희정(2020), 「대학의 인성 기반 교양교육 현황 및 방향 모색: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제12호,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pp.127-155.
- 김경아·전지원(2017),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필수 교과목 운영의 효과성 분석」, 『교양학연구』, 제6호,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pp.125-147.
- 김수정·김민경·김정선·김애진(2022), 「교양수업 수강생의 세계시민성 변화」,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723-743.
- 박성희(2025), 「프로젝트학습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5권 제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683-694.
- 박소은(2025),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 말하기 교육 연구」, 『영주어문』, 제60권, 영주어문학회, pp.377-401.
- 손나경(2018), 「시각매체와 소설 읽기를 통한 교양교육: 『로빈슨 크루소』 읽고 보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15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283-308.
- 송영숙(2021), 「대학생 글로벌 시민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발 사례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pp.99-116.
- 유네스코(200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이혜영·조혜승·박수정(2017), 「미국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연구:

South Florid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제9권 제1호, 글로벌교육연구학회, pp.3-30.

이호숙·전병국(202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목 설계와 성찰」, 『대학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pp.101-129.

정경희·위은하(2023), 「대학교양교과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 옷장 속의 세계시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3권 제1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619-639.

정슬기·허혜경·김혜수(2018), 「대학생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글로벌 시민교육’ 강좌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제12권 제2호, pp.89-107.

차봉준·성신형·한윤영(2020), 「대학생 세계시민교육과 환경 담론 - 교육 과정 구성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제19권 제2호, 문학과환경학회, pp.235-260.

한건수(2024), 「유네스코 <평화, 인권,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Discourse 201』, 제27권 제3호, pp.189-233.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https://www.developmenteeducationreview.com/issue/issue-2/never-twain-shall-meet-breaking-barriers-through-global-citizenship-partnership>

<https://education.rebootthefuture.org/the-global-learning-programme>

<https://www.unescoapceiu.org/post/5185>

국문초록

대학 교양수업이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북미 사회와 문화의 이해’ 수업을 중심으로—

신영현
(한성대학교)

글로벌 교통과 통신의 발달,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체제 하에서 자본, 노동, 문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초연결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개 글로벌 사회 차원의 협력과 대처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시민의식은 날로 중요해지는 가치이자 역량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고등교육 기관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는 H 대학교의 3학점짜리 선택 교양 과목인 ‘북미 사회와 문화의 이해’가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해당 수업은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 문화, 지리 및 사회 제도를 다루며 학생들의 비교 문화적 시각, 비판적 사고, 토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동일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 수업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은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역지사지’ 능력, 즉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 기술, 태도, 실천 의지 등 세계시민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한 신뢰도를 갖추었다. 설문 결과, 수업 수강 후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점수가 학기 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의 보편성 인식’, ‘자기 강점과 약점 파악’, ‘타인과의 토론 및 소통 능력’, ‘다문화 수용성’, ‘인간 존엄성 인식’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수업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인문 교양 수업이 다양한 문화 경험과 토론, 자기 성찰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주제어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교육, 교양수업, 수업 효과성, 설문 조사 분석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s in Enhancing Global Citizenship

—Focusing on the Course “Understanding North American Societies and Their Culture”—

Shin, Younghun
(Hansung University)

The problems faced by today’s “hyper-connected society”—shaped by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labor, and culture under a global economic system driven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can only be resolved through cooperation and action at the global societal level. Consequently,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value and competency,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have been implemen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various ways. While diverse form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ist, research on its effectiveness remains limite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3-credit elective liberal arts course “Understanding North American Societies and their Culture” at H University on cultivating students’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The course covers the history, culture, geography, and socia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iming to foster students’ comparative cultural perspectives, critical thinking, and discussion skill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ourse’s effect on enhancing students’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through identical surveys administere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emester. The survey items, based on the core values of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the ability to see issues from another’s perspective—covered various aspects of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including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act, and demonstrated sufficient reliability. Survey results confirmed that students’ global citizenship scores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taking the course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Notably, improvements were observed in “recognition of cultural universality,” “identification of pers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skills,”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This suggests that the course was effective in cultivating students’ global citizenship. This demonstrates that humanities courses not explicitly focused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enhancing global citizenship competencies through diverse cultural experiences, discussions, and self-reflective activities.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iberal Arts Course, Course Effectiveness, Survey Results Analysis